

“목표는 자신을 뛰어넘는 것”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 ‘간판’ 차준환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간판’으로 떠오른 차준환(16·휘문중)에게 피겨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일상이다. 차준환은 하루종일 피겨 외에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또 다른 선수를 신경쓰거나,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며 원대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묵묵히 훈련에만 매진한다. 차준환은 12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 빙상장에서 공개 훈련을 마친 뒤 ‘훈련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면서 지내냐는 질문에 “먹고, 쉬는 거”라며 웃어 보였다. 하루 24시간 중 훈련시간을 빼면 차준환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는다. 오전 6시에 일어나 1.2시간 정도 지상 훈련을 한 후 2~3시간 동안 스케이팅 훈련을 한다. 점심식사를 한 뒤인 낮 12시부터 3시간 동안 빙판 위에서 훈련을 하는 차준환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또다시 지상 훈련에 나선다. 취재진이 ‘에는 프로그램도 보지 않느냐’, ‘영화를 본다거나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졌지만 차준환은 “음악은 많이 듣는데, TV는 잘 보지 않는다. 책은 이제 조금 읽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래들은 한창 연예인에 관심을 보이지만 차준환은 “좋아하는 걸그룹도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차준환의 매니저먼트사인 ‘갤럭시아스M’ 관계자는 “차준환이 시간이 있을 때 본인의 대회 영상을 많이 본다”고 귀띔했다.

하루종일 피겨스케이팅을 하고 생각하는 셈이다. 초등학교 2학년 시절 스케이팅을 할 때 얼굴에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것이 좋아 피겨를 시작했다는 차준환은 “그냥 피겨가 일상이 된 느낌이다”고 전했다. 차준환은 다른 선수를 신경쓰거나 하지도 않는다.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한다. 이렇다 할 롤모델도 없다는 차준환은 “대회 직전에도 내가 편하고 좋았던 대회의 영상을 찾아보며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며 “외국 선수 연기 영상을 찾아보는 것은 없다. 내가 한 것만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자 싱글 최강자로 꼽히는 하뉴 유즈루(일본)와 함께 캐나다 토론토의 크리켓 빙상장에서 훈련하지만, 차준환은 “훈련할 때에는 인사인 하는 정도”라며 “하뉴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항상 제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먼 미래를 바라보다 눈 앞에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것도 차준환만의 특징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강력한 기대주로 꼽히지만, 따로 목표를 잡고 있지는 않다. 아직 어떤 곡을 고를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일단 오는 3월 출전할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만 집중하고 있다. 차준환은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오히려 부담되고 긴장된다. 항상 훈련만 생각한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기자



루나·하니·솔라 콜라베이션 음원 19일 공개

그룹 Y(x)의 루나, EXID의 하니, 비비투의 솔라가 한 팀이 된다. 12일 미스틱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세 사람이 콜라베이션 선한 음원이 19일 자정 공개된다. 이번 곡은 루나·하니·솔라의 보컬과 화려한 춤이 가미한 팝소울 장르 곡으로, 박근태 프로듀서의 새 노래다. 아직 제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프로듀서는 지난해 수지·백현의 ‘드림’을 만들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이번 그룹 콜라베이션을 위해 오랜 시간 멤버 구성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 “세 사람은 이번 싱글을 통해 각자 속해 있는 그룹에서와는 다른 매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헬로비너스, 여섯 번째 미니앨범 발표

걸그룹 ‘헬로비너스(HELLOVENUS)’가 최근 여섯 번째 미니앨범 ‘미스터리 오브 비너스(Mystery of VENUS)’를 발표했다. 1년6개월 만에 발표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미스터리어스’다. 스웨덴 작곡가 사이먼 안러브, 일바 댄베리가 공동 작곡했다. 노랫말은 스타 작사가 김이나가 붙였다. 재즈의 스윙과 휘파람, 피아노 그리고 드럼사운드를 편곡한 북고 요소가 도드라지는 ‘레트로 스윙’을 표방하는 경쾌한 팝 댄스다. 신비롭고 호기심이 많은 여성의 모습을 그린 비밀 요원 콘셉트를 내세웠다. 뮤직비디오 역시 비밀 요원으로 변신한 헬로비너스가 비밀이 가득한 한 남자를 미행하며 일어나는 내용을 그렸다. 같은 소속사 판타지오 배우 서강준과 보이그룹 ‘하스트로’의 차은우가 출연했다. 이날 열린 쇼케이스 무대 위에서 비밀 요원 콘셉트답게 저격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헬로비너스는 지난해 빛이 내리며, ‘파라다이스’ ‘팬웨이’ 등 총 3장의 프로젝트 앨범을 발매하며 다양한 콘셉트의 음악에 도전했다. 헬로비너스 멤버들은 “이번 앨범은 이 프로젝트의 종착점으로 ‘미스터리어스’를 통해 ‘레트로 스윙’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 음악적으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뉴시스

김진수, 전북현대 유니폼 입는다

생애 첫 K리그 무대입성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수비 전력 보강을 위해 독일 분데스리가 TSG 1899 호펜하임의 국가대표 수비수 김진수(24)를 영입했다. 11일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김진수는 12일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구단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사인했다. 김진수의 이적료는 140만유로(약 17억 5000만원)에 마무리됐다. 관건이었던 연봉과 계약기간도 구단과 선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협상됐다. 계약기간은 4년. 전북은 독일 분데스리가 3개 팀과 K리그 팀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생애 첫 K리그 무대를 경험하는 김진수의 가치를 인정해줬다. 김진수는 공격적인 수비와 빠른 발을 통

해 날카로운 오버래핑이 특기이다. 김진수의 영입으로 포백라인의 견고함은 물론 더욱 공격적인 축구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녹색 유니폼을 4년간 입게 된 김진수는 전북 전주 출생으로 2012년 일본 알비렉스 니가타에서 프로 데뷔 후 2014년 독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으로 이적하며 유럽 진출에 성공했다. 24살의 많지 않은 나이에 일본과 독일에서 102경기에 출전 하며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았다. 김진수의 능력은 각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인정 받았다. 2009년 U-17 월드컵을 비롯해 19, 20세 대표팀을 두루 거친 김진수는 2013년 동아시아컵을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2014년에는 이재성과 함께 인천 아시안 게임 대표로 대표팀의 금메달을



이끌었다. 최 감독은 왼쪽 측면에 김진수 오른쪽 측면에 이 용이란 국가대표급 풀백을 품에 안으면서 고민이었던 안정적인 빌드업과 크로스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최강희 감독은 “김진수는 지금의 기량을 넘어 앞으로의 기대가 더욱 큰 선수이다. 그 기대에 부응할 선수라고 믿고 있다. 좌우 풀백의 공격적인 선수들이 보강되면서 올 시즌에는 전북의 다양하고 화려한 공격 축구를 팬들에게 보여줬다”며 전했다. 최강희 감독은 “김진수는 지금의 기량을

/김민기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